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재논의 이용섭 “연내 대안 마련할 것”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응적으로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3년째 교착 상태에 놓인 자치구간 경계조정 재논의와 함께 이르면 연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갈등이 다시 되풀이될 경우 시가 직접 나서 결정하겠다는 배수진도 썼다.

이 시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시의회 의장단과 5개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이어 논의의 결과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채택하는 각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서로 다르다”며 “2014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의제, 기대효과도 큰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서 지난 2018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개편대안을 마련해 시에 건의하면 시는 다시 5개 구에 최종 입장을 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해내겠다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 시장은 “기획적 선거구의 정상화와 구간 인구 편차 불균형 조정, 구도

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 마련,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성 확대 등 경계 조정의 효과적 적지 않음에도 관련 자치구와 정치권, 주민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2년전 용역 결과 도출된 3가지 안 중 대폭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은 반면 소폭과 중폭 개편에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고 밝혀 경계조정안은 소폭 또는 중폭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8년 1~11월 1억3700만원에 들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기획회의와 자문회의, 시민 설문,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개 안을 확정했고, 그 가운데 시민 선호도가 38.8%로 가장 높은 중폭 조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중폭 개선안은 북구 다선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점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북구 개선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점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다선구인 월곡1·2동, 운남

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대폭 개편안보다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지 않다.

북구 다선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소폭 개편안이 지역갈등 최소화나 무등산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은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조정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비교해서도 “가장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구 중 북구와 광산구는 전반적 영역을 나눠 갖거나 뺏기는 처지여서 반대론이 적지 않은 반면 나머지 3개구는 상대적 수혜 가능성이 높아 긍정론이 높은 편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구만, 자신의 동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에선 안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선거까지 2년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의식해선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도 말했다.

갈등 재현을 고려한 ‘배수진’도 썼다. 그는 “용역 결과는 꼭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다. 역사성 등도 넉넉히 감안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되면 시에서 직접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이용섭 광주시장, 북부소방서 근무자 격려

이용섭 광주시장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북부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해 전남 건강지표 개선”

광주전남연구원 제안

공공형 의대 설립을 통해 전남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5일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Brief’를 통해 공공의료자원 확충과 전남의 의대 육성 방향을 제안했다.

황성용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남의 건강 관련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12~2015년 전남의 평균 기대수명은 전국에서 가장 짧은 80.7세로 가장 긴 서울의 83.3세보다 2.6년이 짧았다. 건강하게 산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64.9세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지역과 소득 모두를 고려했을 때 전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신안군의 소득 하위 20%는 건강수명이 가장 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소득 상위 20%보다 건강수명이 무려 2.6년이 짧다.

전남의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도 437명으로 광역도 평균 645.6명보다 적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응급의료의 핵심 기관인 권역 응급센터는 2개, 지역응급센터는 3개로 광역도 평균 2.3개, 7.2개보다 적다.

황 부연구위원은 전남의 의료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관리, 동네의원·공공병원과 신설 의대가 연계된 전남형 의료 시스템 구축,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역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보다 의대 유치 자체가 목표가 되는 소지역주의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며 “지역의 갈등 관리 및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의체, 도민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구, 청년상인과 대인예술시장 활성화 논의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기에 빠진 ‘대인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인시장에서 열린 ‘대인예술시장 상권 부흥을 위한 상생 협력 회의’를 통해서다.

대인문화예술시장 상인회 소속 청년상인위원회(회장 김유신)가 주관하고, 동구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입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이병훈 국회의원, 정미용 동구의회 의장, 시·구 의원 및 상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구, 자살예방사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광주 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 실적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우수실적 지자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전국 236개 중 1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서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서구는 자살예방 실행계획 3개 분야 △자살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부문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 창출’ 우수상 영예

광주 남구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설계를 위해 선보인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올해 일자리 분야 우수 정책에 선정됐다.

남구는 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신중년 인생 2모작을 위한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사업이 일자리 분야 우수정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9년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기관리구역 확대 지정 법안 제정되면서 검사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을 미리 예측한 판단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북구, 2020 사이버 무역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광주 북구가 오는 11월에 열린 ‘2020 사이버 무역상담회’에 참가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전남KOTRA지원단과 함께하는 사이버 무역상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당초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방문 제한 등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화상 상담방식으로 변경했다.

상담회는 중국, 동남아, 대양주(호주, 뉴질랜드)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참가기업에게는 바이어 매칭,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물류비용(최대 30만 원), 통역 등이 지원된다.

광산구, ‘건강밥상’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찾아간다

광주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건강한 반찬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이하 건강밥상협동조합)이, 5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건강밥상협동조합 발기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에서 만든 반찬과 먹거리로 아파트 주민에게 행복한 건강 밥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밥상협동조합은 광산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 복지정책 ‘늘행복 프로젝트’의 하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건강밥상협동조합 창립은 급물살을 탔다.

임행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년381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운서 (330814 - 1567519)
최 후 주 소 : 목포시 상동로 64, 305동 1513호 (상동, 상동 3,4단지아파트)
등록기준지 : 목포시 죽교동 4

위 망 김운서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10월 6일

공 고 인 : 김백순
주 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42, 107동 1107호 (용신동, 라인하이츠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9월 23일
공 고 기 간 : 2020. 10. 06 ~ 2020. 12. 06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00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40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배혜정 (720410 - 2580516)
최 후 주 소 : 광양시 광장로 112-20, 102동 701호 (중동, 성호아파트)
등록기준지 : 전남 광양시 금호동 151번지

위 망 배혜정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10월 6일

공 고 인 : 허은진, 허원진, 허대환, 남은주, 남은선
주 소 : 광양시 눈소4길 65, 102동 1602호 (마동, 우림필유아파트)
광양시 중마용소2길 13-5, 302호 (중동)
광양시 광장로 112-20, 102동 701호 (중동, 성호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9월 25일
공 고 기 간 : 2020. 10. 06 ~ 2020. 12. 06